

해외연수 보고자료

웹 데이터 베이스 및 전자저널 공동구매 연구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을 중심으로-

임 영 희

(수서정리과)

〈목 차〉

| | |
|----------------------------------------|----------------------------------------|
| 1. 개요 | A.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전자 정보 공동 구매 위원회 구성 및 현황 |
| 2. 한국의 웹 데이터 베이스 및 전자저널 공동 구매 현황 및 문제점 | 가. 전자 정보 공동 구매 위원회 구성 |
| 가. 국내 전자 매체 공동 구매 현황 | 나. 전자 정보 공동 구매 수서 원칙 |
| 나. 국내 전자 매체 공동 구매의 문제점 | B. 그 밖의 컨소시엄 |
| 다. 현재 공동 구매 추이 | 4. 결론 |
| 3. 컨소시엄 사례 연구 | |

1. 개 요

도서관에서 정보를 찾는 이용자들의 요구는 다양하다. 이제까지는 도서관에 직접 찾아 와서 소장 목록을 찾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구해 복사를 하거나 대출을 해서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도서관 정보 서비스의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제 이용자들은 더 이상 도서관으로 직접 찾아 와서 소장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좀더 기술적인 부분에 친근한 이용자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데스크탑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고자 할 것이며 이에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이용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도서관을 찾아와 인쇄 매체를 통해 자신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을 것이다. 텔레비전이 라디오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듯이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쇄매체를 더 선호하는 이용자는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대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의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매체에 대한 국내 도서관의 구독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 국내

에서 경쟁적으로 번지고 있는 다량의 웹 데이터 베이스 및 전자저널 구독은 올바른 것이며 효과적인 것인가? 정말 이용자의 요구를 위한 것인가? 마치 덤핑 제품을 헐값에 사들이듯 가격적인 측면이 유리하면 이용도 되지 않는 정보를 사들이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수만 불을 들여 사들이는 정보가 실제로 이용자에게는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가? 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따내어 사서 자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허울 좋은 외화 낭비는 아닌가? 온라인 매체의 출판사나 공급업자에 이끌려 우왕좌왕 하며 각 도서관간에 서로 눈치를 살피며 경쟁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사들이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러한 성급한 구독은 많은 문제를 예기할 수 있다. 특히 웹 데이터 베이스나 온라인 저널은 인쇄 매체와 달리 고가의 제품이 많다는 측면에서, 또한 한번 온라인 DB가 이용된 후에는 이에 친숙해진 이용자의 구독 요구가 계속되기 때문에 구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구독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검토 없이 구독을 할 경우 가격이나 서비스면에서 도서관이 지불한 만큼의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가격이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매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구매 단위를 확장함으로써 거대한 구독 시장을 형성하여 출판사나 벤더가 무시하지 못할 시장 효과를 올리는 market place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현재 많은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독 방법이 바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구독이다. 지금 국내에서는 웹 데이터 베이스, 온라인 저널의 홍수 속에서 정말 질 좋은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여기 저기 벤더에 의해 주도되는 컨소시엄이 형성되고 있다. 때문에 도서관은 주체가 되기보다는 벤더의 제안 조건이나 가격에 끌려 다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온라인 매체 공동 구매에 참여하는 도서관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도서관이 주도가 되는 컨소시엄 형성, 또한 수많은 정보 중에서 과연 진정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맞추어 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온라인 정보는 무엇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 형성, 혹은 구독이 결정되어 지불이 끝난 뒤에도 벤더나 출판사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독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항목 형성,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기준을 바탕으로 공동 구매 각 기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성문화된 공동 구매 과정을 작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구독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질이 높지 않은 온라인 정보를 오랜 기간 구독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측면이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측면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즘음에 다른 국가의 공동 구매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그들은 어떠한 원칙을 세워 온라인 정보를 선정하고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개개 도서관의 요구를 조율하고 벤더와 협상하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국내에서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는 공동 구매에 있어서 더 이상 불필요한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질 좋은 데이터,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잠재된 요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동 구매 현황을 알아보고 이의 문제점을 찾는 것으로 이 보고서를 시작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웹 데이터 베이스 및 전자매체 공동 구매 현황

가. 국내 전자 매체 구매 현황

웹 데이터 베이스의 공동구매 시작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당시 신원 데이터 넷이라는 공급업체가 활발히 웹 데이터 베이스를 한국에 소개하고 공동구매를 형성함으로써 국내의 많은 대학 도서관 및 특수 도서관이 이에 참가하게 된다.

나. 국내 전자 매체 공동 구매의 문제점

가) 높은 가격

하나의 공급업체가 독자적으로 출판사와의 협상을 추진하여 도서관에 가격을 제안함으로써 도서관은 구매의 주체로서가 아닌 제 3자로서의 위치에서 구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판사가 제안하는 실질적인 가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혹은 공급업체가 실제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서비스 비용을 도서관에 부담시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같은 제품이 다른 국가의 도서관에 얼마의 비용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없었다.

나) 질 낮은 서비스

구독하는 온라인 매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구독 후에 지속

적인 서비스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당시 가격 이외의 다른 고려할 사항 - 예를 들면 온라인 정보 교육 지원, OPAC으로의 연결, 지속적인 기술 관리 서비스, 구독이 끝난 후에 도서관이 누려야 할 perpetual access 등의 문제 - 을 계약서 상에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가 많았다.

다) 구독 결정의 문제

특정한 기준이나 검토 없이 도서관 측에서 벤더에 요구하여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벤더가 제안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많았다.

다. 현재 공동 구매 추이

가) 벤더의 다양화

위와 같은 독자적인 벤더와의 계약으로 일어나는 병패를 막기 위해 비영리 기관이 KERIS에 공동구매를 위임하거나 카이스트와 같이 한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벤더를 선정하고 가격 협상에 관여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나) 충분히 검토된 구매 기준의 부재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정보의 선정 기준이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개개의 도서관을 조율 할 수 있을 만한 성문화된 원칙이 없이, 상황에 따라 혹은 주체가 되는 기관의 독단적인 기준에 의해 온라인 정보가 선정되고 협상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안정되고 성문화된 온라인 디비 및 저널의 선정기준, 공동 구매 참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율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그 밖의 계약이나 협상에 필요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지난 1992년에 창설되어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간의 공동 구매를 담당하고 있는 EAR committee 역할이나 지침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 밖에 다른 컨소시엄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해 봄으로써 이를 국내의 사정에 적용하여 보다 나은 전자 매체 선정 기준을 세움으로써 효과적인 공동구매가 정착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3. 권소시엄 사례 연구

A.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 공동 구매를 위한 위원회 역할 및 공동 구매 현황

가. 전자정보 공동 구매 위원회 Electronic Access to Information Resources Committee(EAR) 구성

〈위원회 구성 목적〉

EAR 위원회는 1990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간에 데이터 베이스 수서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 간의 정보를 평가하며, 권소시엄을 구성하여 밴더와 함께 권소시엄 크기에 맞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구매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두 명의 도서관 관장은 회장과 부 회장직으로 봉사한다.
- 장서관리, 전자 매체, 참고 서비스, 시스템 & 기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8명의 사서로 구성된다.
- 한 명의 IRM 대표를 갖는다.
- 관장, IRT/시스템크기의 전자적 정보 매체

〈위원회 임무〉

- 각 주립대학 도서관에서 현재 구입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구입이 요망되는 전자 매체에 관한 정보, 데이터 베이스, 하드웨어, 컴퓨터를 통해서 이용되는 정보자료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다양한 전자매체 서비스를 구독하기 위하여 상대적인 가격을 평가하고 비교한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매체를 평가한다.
- 밴더의 프리젠테이션, 위원회의 평가, 밴더의 답변, 전체적인 규모의 트라이얼 서비스 등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이용시킬 수 있는 다양

한 제품의 효율성을 분석한다.

- 직면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의 수서 및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발한다.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전자매체 수서 정책, 핵심 장서개발 기준에 맞게 평가하고, 재심한다.
- 초기 전자매체 핵심 장서 개발계획에 따라 추천된 자료를 선정된 수서원칙과 기준에 맞게 평가하고 재심한다.
- 핵심 전자매체를 수서하기 위해 필요한 RFQs와 RFPs를 개발한다.
- 위원회 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결정 사안 등을 SEIR 웹 페이지나 EARinfo 등을 통해 정규적으로 배포한다.

〈위원회 활동 범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 범위를 가진다.

- 투자한 것에 대해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활동방안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들이 효과적인 선정을 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시장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현존하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주립대학이나 가능한 다른 대학이 유용한 정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 함께 모안을 낼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워킹 컨퍼런스를 후원한다.
- 일반적인 도서관과 특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미래 지향적”인 계획을 개발한다.
- 전자 매체에 관계된 위원회(예를 들면 Unified Information Access System (UIAS))나 실무 그룹의 활동을 조정한다.

〈위원회 검토 과정〉

각각의 EAR 위원회 멤버는 자신들이 제출한 공식적인 제안서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검토 과정은 EAR 위원회나 ITS/SEIR (Systemwide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대표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원회 멤버는 단지 어떤 특정한 캠퍼스를 위한 것이 아닌 전체로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안을 조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 EAR 검토 답변 양식은 각각의 위

원회 멤버가 고려중인 각각의 공식적인 제안서를 작성함으로써 완성된다.

검토되어야 할 각각의 항목은 그것을 받아들일지 거절 할 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도서관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몇몇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항목은 각 단계에서 검토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개시

누구든 어떠한 항목을 위원회가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AR 회장이나 ITS/SEIR 대표는 이러한 항목을 거절할 수 있으며 더 고려할 것도 없이 항목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2. 준비

EAR 위원회의 공식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ITS/SEIR 대표가 아이টে를 마련한다. 우선 검토 후 작성하는 양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주로 인포메이션 데이터 베이스(기능, 내용, 범위) 검색 인터페이스(기능성, 검색의 용이성), 이용자 지원 서비스(온라인 헬프 메뉴, 교육), 비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전반적인 사정을 하게 된다.

3. 신청 혹은 취소

Review Reply form을 통해서 신청 된 항목이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를 여부가 결정된다. 취소되는 항목들은 Subcommittee를 통해서 새로운 측면이 발견되면 다시 재고되어질 수 있다. 다시 재고되어진 항목은 새로운 항목으로 간주되어 절차를 밟게 된다. 대개 이도 저도 아닌 결과들은 신청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신청이 이루어지려면 전반적으로 평가된 세부 항목을 제출해야 한다.

4. 집행

위와 같이 신청된 내용에 대해 대다수의 회원이 동의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역사와 배경〉

이 위원회는 1990년 봄에 Information Recourse에 대한 전자적인 접근을 연구한다는 특수한 목적을 띠고 발족되었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장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선발되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의 기술적인 적용 능력과 집행을 조사하는 것이다. 위원회와 협력하여 일하는 회원이나 직원은 도서관장 및 Library Affairs 사무실의 Dr. Tom Harris가 추천한 명단에서 선발되었다.

〈EAR 위원회의 본래의 임무〉

-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를 분석하되 그러한 요구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원에 관계되는 것들이어야 한다.
- 현재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이든 캘리포니아 대학이든 혹은 CCR 등 특정 부서에서든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용성을 요약한다.
- 현재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의 상대적인 비용을 분석한다. 그러한 서비스가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예를 들면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베이스가 각각의 캠퍼스 별로 혹은 지역 별로 주단위로 이용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 의사결정, 고려중인 데이터 베이스, 선정 및 수서를 위해 작업 기준 리스트의 초안을 작성한다.
- 여기까지의 결과물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장 회의, Library affairs office, 관련 있는 IRT 요원, 컴퓨터 센터 대표, 캠퍼스에 속해 있는 개개의 교수들과 토론한다.
- Vice Chancellor, Academic Affairs, California 주립 대학에 제출하기 위한 마지막 제안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1990년 가을에 최초로 모임을 가졌다. 위원회가 처음 만난 이래 여러 가지 쟁점들과 관심사가 연구되어 지고 토론되어졌는데 여기에는 위원회 회원들과 초대된 손님들이 참석했다. 특히 CSUNET, BITNET, INTERNET, WORLD WIDE WEB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졌는데 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진과 학생들의 정보 이용 요구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의 잠재성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지적 수리적, 전문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네트 워크 접근이 가능한가가 조사되었다. 부가적으로 위원회는 인쇄 형태와 팩스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는 벤더를 조사했으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CD-ROM 제품의 이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다양한 벤더들이 전자적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그룹 디스카운트를 해 줄지의 여부, 일반적인 자료들을 네트 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했다.

현재의 EAR 활동은 1991년에 세워진 지침을 토대로 하고 있다. 1992년, 11월쯤 EAR 위원회는 영구적인 COLD 위원회를 설립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을 둘러싼 토론을 거친 끝에 Media 관장 대표와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위원회 가 1995년에서 1997년에 걸쳐 EAR 위원회에 합류했다.

COLD는 주요 서비스 지역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대표들을 합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EAR이 항상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캠퍼스에서 회원을 뽑지는 않지만 남북에 걸쳐, 크고 작은 캠퍼스와 주요 서비스 지역의 회원을 포함하고 있다.

나. 전자적 정보 자원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수서의 주요 원칙

1. 서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들은 신청된 자료를 개발하고 검토할 시에, 혹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 공급업자와 계약을 맺거나 협상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쟁점이 되는 많은 논지들은 계속적으로 토의되고 집행되고 협력하게 된다.

2. 장서 개발

A. 장서 개발 정책이나 기준은 전자적 정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포맷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만들어진다.

B.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 각각의 자료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서를 계획할 수 있는가.
- 교수진과 학생들의 정보 요구에 적합한가.
- 접근이 가능한 전자적인 정보이며 그것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통합될 수 있는가.

C. 다음의 사항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분야
- 교수용, 연구용 자료
- 각 캠퍼스간의 다양한 요구

D. 다음과 같은 전자적 정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 자료의 통합성
- 규모의 경제성
- 최대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 시기적 적절성
- 기능성의 증진

- 원거리 접속
 - 자료 공유의 효율성
 - 지속적인 이용 권한
- E.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은 얻어진 자료의 형태와 내용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 F. 같은 제품에 대한 프린트 형태와 전자적 형태를 공급업자가 연결해 주는 링크 시스템을 선정하지는 않는다.
- G. 전자적 정보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내용이 필요하다.
- H.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의 전략적 계획의 목적에 적합한 수서가 되어야 한다.

3. 비용과 가격

- A. 정보 공급업체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이 선정한 자료에 대하여 다양한 가격 모델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은 동시 이용자수, 이용자 규모, 로케이션의 수, 도서관 예산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기초로 할 수 있다.
- B. 캠퍼스나 시스템 FTE를 기준으로 한 가격 모델은 때때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내용이 전체 이용자 인구 중 제한된 부분의 관심사에만 부합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만일 데이터가 폭 넓게 혹은 일반적으로 유용한 자료가 아니라면 가격은 실제 이용자 그룹의 크기나 추정된 혹은 실제로 기록된 이용률을 객관화 한 것 등, 보다 적합한 기준을 근거로 산정되어야 한다.
- 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은 같은 데이터의 인쇄물과 전자 형태 모두를 같이 구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
- D. 전체 가격은 이용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어야 한다. 정보 공급업체는 어느 정도의 이용자 크기에서 전체 가격이 감소하게 될 지 그 출발점과 위험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 E.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비용과 콘텐츠 비용은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은 액세스 서비스와는 별도로 전자정보 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내용에 대해 다양한 Access Provider가 제공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은 어떠한 서비스가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최상의 서비스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은 필요하다면 콘텐츠에 대해 이미 라이선스 협상이 끝난 경우 이에 대한 재

협상 없이 Access Provider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F.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에 대한 정보나 액세스 비용은 기 대학이 미래의 이용자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훈련 시켜 시장을 창출하는데 일조 했다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4. 라이선스

- A. 라이선스를 받은 리소스가 나중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어도 이미 지불된 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이용 권한을 포함하는 라이선스이어야 한다. 라이선스는 취소될 경우의 액세스 권한뿐만 아니라 현재의 커버리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Sliding year access, Backfiles, Access to computer rum)
- B. 정보 공급업체는 스탠더드 Agreement를 권한을 가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용어는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이 이용을 감시하고 오용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기대치를 반영해야 한다. Agreement 는 지속적으로 Business 분야와 법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권한을 막을 수는 없다.
- C. 이용권한이 있는 자는 현재의 학생, 교수, 직원, 행정직, 그리고 이밖에 캠퍼스나 혹은 대학에 있는 이용자이다. 이용자에 대한 권한 부여와 인증은 공급업체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양쪽에 책임이 있다
- D. 라이선스는 권한이 있는 이용자가 교육적, 연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공정한 이용 - viewing과 출력(다운로드, 이메일, 출력) - 을 인가해야 한다.
- E. 라이선스는 데이터의 내용과 통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공정한 이용 범위안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혹은 보다 가치 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데이터를 reformat하거나 증가시킬 권한을 제한 할 수 없다.
- F. 벤더가 제공하는 캠퍼스 수준의 이용 데이터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상의 조항을 만든다. 개개 이용자와 그들의 검색에 대한 비밀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이 생산한 이용 데이터는 정보 공급업체도 이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은 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ICOLC)의 웹을 기반으로 한 색인, 초록, 전문자료 이용 통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지원한다.

G.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은 회계연도의 시작 시점과 같아야 한다.

5. 기능성

A. 검색 엔진 인터페이스나 정보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한 이용방법이나 예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문서는 깨끗하고 간명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온라인 헬프 메뉴는 Context-sensitive 해야 한다.

B. 정보 프로바이더의 시스템 용량과 네트워크 구조는 기술적으로 최신성 있게 갱신되어야 하고 적절한 response time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는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과 특징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D. 정보자원은 platform-independent하여야 한다. 공급업체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산업 표준에 맞는 디스플레이와 출력물 포맷을 공급하여야 한다.

E. 공급업체는 Disabilities Act Compliance를 가진 미국인에 맞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노트: ADA 웹 디자인 지침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

F. 공급업체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이 정보의 포맷, 내용,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G. 액세스 포트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면 이용자를 훈련시키던가 패스워드를 알려 주어야 한다.

H. 공급업체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들이 개개의 도서관으로부터 지역의 정기간행물 소장 사항을 추가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캠퍼스 수준에 혹은 시스템 수준에 맞게 customization 해달라는 도서관의 합리적인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I. 인터페이스와 검색엔진은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검색의 특징에 따른 모든 검색 이용이 가능하도록 고급 검색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속적인 이용

A.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은 라이선스를 받은 혹은 취득한 전자적 정보의 아카이브를 통한 장서의 통합적인 관리에 대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은 전자적 아카이브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 B.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은 라이선스를 받은 자료가 이후에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더라도 지불한 정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C. 모든 agreement와 라이선스에 아카이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D.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은 아카이브에 대해 전자적으로 혹은 프린트로 카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E. 인포메이션 공급업체가 아카이브에 대하여 지속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 자체적으로 서버를 두고 아카이브에 대한 접속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아카이브 정보를 옮기거나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나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 웹을 통한 위원회의 검토 응답 양식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Review Reply Form(RRF)

평가할 아이템

응답 기한 일

EAR 위원회 회원명

전자 우편 주소

캠퍼스

검토 일자

저는 지금 검토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 불가

이유 (검토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넣고 난 후 아래의 클릭 버튼을 누른 후 이 문서의 마지막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오.

소개

각각의 EAR 위원회 회원은 공식적인 제안서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토 과정은 EAR 위원회 의장이나 IRT/SEIR (Software &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대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전자적 방법으로 자원 평가 검토 응답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위원회가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고안된 수단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이 평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을 완성함으로써 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가 완성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에 대한 제안의 잠재적인 가치는 전체적인 비율을 기초로 평가되어야 하며 특정 캠퍼스의 요구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나 평가에 대해 위원회가 이해 할 수 없는 항목이 있다면 EAR 위원회를 위한 IRT/SEIR 대표나 EAR 위원회 회장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적절한 항목에 표시를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평가점수와 코멘트에 대한 이유를 아래의 공간에 서술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검토 양식에 응답하기 위하여 다른 이들과 토의과정을
거쳤다.
거치지 않았다.

제안점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에 1점 혹은 그 이상의 점수를 매기셔야 합니다. 평가 대
상이 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적합한 항목에 점수를 넣으십시오

점수는 1점에서 4 점까지 줄 수 있으며 1점은 최소한의 가치 4점은 아주 중요한 가치
를 뜻하게 됩니다. 주의 : 평가는 특정 캠퍼스의 독단적인 필요가 아닌 전체로서의 캘리
포니아 주립 대학의 잠재적인 가치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 인포메이션 데이터 베이스

기능성을 고려하십시오. 포맷(서지적 정보인지 혹은 전문정보인지)의 적합성, 그리고
정보의 콘텐츠를 고려하십시오. 커버리지(소급 정보 혹은 커런트 정보)의 적합성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전체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십시오.

평가 이유

• 검색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이용의 용이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십시오. 과도한 교육과정이 필요로 되는
것인가?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빠진 중요한 특징이 있는가?

평가 이유

• 사용자 지원 서비스

제품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큐멘테이션이 요구된다면 이것이 이용 가능한가, 이러한 도큐멘테이션은 포괄적이면 잘 문서화되어 있는가? 온라인 헬프 메뉴는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필요하다면 벤더가 이용자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전화를 통한 헬프 지원이 가능한가?

평가 이유

• 비용

비용이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적합한 수준인가?

평가 이유

•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품에 대한 접근이나 접속이 안정적인가? Response 시간이 적절한가?

평가이유

• 전반적인 평가

#1 : 지원 할 수 없음

#2 :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없음. 그러나 아래의 코멘트 박스에 서술된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미래에는 지원을 고려 할 수 있음

#3 : 도서관장의 수락 혹은 거절을 받기 위해 제안된 사항을 추천 혹은 지원 할 수 있음. 다음의 코멘트 박스에서 제품의 개선점을 참고 하기 바람.

#4 : 적극적으로 제안함. 추천된 제안사항이 도서관장의 수락 또는 거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되기 바람.

코멘트

만일 당신의 캠퍼스에만 국한시켜 유틸리티를 평가한다면 몇점이 되겠는가?

코멘트

| | |
|-----|----|
| 보내기 | 취소 |
|-----|----|

전자적 정보 자료 평가서

고려해야 할 질문들

- Database Contents
- 검색 인터페이스
- 이용자 지원 서비스
- 비용
- 서비스의 접근 성
- 중요한 특징 다른 고려 사항

〈DATABASE CONTENTS〉

- 검색 결과 건수는 괜찮은가? (즉 검색 주제에 대해 충분한 인포메이션 결과를 받았는가)
- 검색 결과의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가? (검색 결과물로 제시된 논문이 일반적으로 목적했던 결과에 맞는 것들인가)
- 전문은 괜찮은가?
- 내용들이 미국자료에 국한되어 있는가? 아니면 국제적인가?
- 데이터 베이스에 특별한 그룹이나 배경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가?(즉 인종이나 성별 등등)
- 데이터 베이스에 한번에 얼마나 많은 연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가?
- 주제에 적합한 검색된 결과가 시기 적절한 것들인가?
- Back file은 어떤가? 백 파일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가? 과년호는 제외되었는가? 그렇다면 과년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다음해에 구독이 취소된다면, 이미 지불한 연도에 대한 지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 공급업체가 각각의 타이틀 별로 색인을 제공하는 년도와 전문을 제공하는 년도에 대하여 알려 주고 있는가
- 데이터 베이스의 갱신 주기는 어떠한가? 최신 정보를 유지 할 수 있을 정도인가?

- 어떤 종류의 소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가? (Text만? 단행본 자료? 정간물? 혹은 이미지 정보? 차트와 그림? 라디오나 티비 프로그램 사본?)
- 소스 데이터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연구지원용? 일반적인 관심사? 혹은 두가지 다?
- 소스 자료의 리스트(저널, 북 등등)는 쉽게 데이터 베이스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가? 아니면 공급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소스 데이터의 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가? 프린트 아웃해서 볼 수 있는 형태인가?
- 공급업체가 인덱스 자료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혹은 선별하여 작성된 것인지를 알려 주고 있는가?
- 소스 데이터 자료는 다양한 community college 학생의 수준에 맞는 것인가? (내용, 독서 수준, 주제의 깊이와 넓이 등등)
- 도큐먼트는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어 지는가? (인용만? ASCII 형태의 전문? HTML? PDF? 이미지는 포함되어 있는가?)
- 질의 관리 - 텍스트가 오자를 포함하고 있는가? 혹은 스캐닝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 내용에 특이한 사항은 없는가? (즉 외국의 press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매 시간 갱신되는지, 혹은 논문이 영어와 스페인어 등으로 이용 가능한지 등등)
- 다음의 사항들이 가능한가
 - ◎ 절단 검색(예를 들면 nurs*로 검색하면 nurses, nurse, nursing...이 모두 검색될 수 있는지)
 - ◎ 구문 검색이 있는가? (예를 들면 Community and college 로 검색하는 대신 Community College로 검색할 수 있는지)
 - ◎ 연도 검색 제한이 있는가? 연도 제한을 두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가(예를 들면 1997년 이후 와 풀 다운 메뉴를 이용한 특정한 연도의 제한을 이용하는 것)
 - ◎ 형태 제한 검색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신문자료만, 혹은 이미지 자료만)
 - ◎ 필드 제한 검색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논문 내용 중에서 gun control을 검색)
 - ◎ 동시에 여러 개의 필드를 이용한 복합적인 검색이 가능한가?(예를 들면 주제는 gun control 이면서 저널명은 Newsweek이면서 데이터 연도는 99년 2월 1일 이후 자료)
 - ◎ 전문자료만 제한 검색이 가능한가?
 - ◎ 인용된 저널로 제한 검색이 가능한가? (좀더 학술 적인 저널)

- ◎ 논문의 text 검색이 가능한가? (논문 제목, 주제 표목, 저자는 물론이고)
- ◎ 논문 별로 할당된 주제 표목을 확인할 수 있는가? 같은 주제 표목을 가진 다른 논문으로 hot link가 되어 있는가?
- ◎ 추후에 프린트를 하거나 이 메일 보낼 수 있도록 마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 ◎ 작업한 대로 타이틀 서지를 만들어 주는가?
- ◎ 이용자가 검색하는 동안 작업했던 링크나 데이터를 work space에 저장할 수 있는가?
- 주제 전거(데이터 베이스 에서 사용된 주제 표목 리스트와 상호참조)를 볼 수 있는가? 온라인인가? 프린트 형태로 볼 수 있는가?
- 검색된 결과는 어떤 순으로 정렬되는가? (연도별로? 적합성 정도에 따라?)
- 공급업체가 자료 검색 결과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 해 주고 있는가?
- 검색을 refine하는 데에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가?
- 백 파일은 별도로 검색되는가?
- 어떠한 종류의 배달 방법이 제공되어 지고 있는가? (온라인으로 보는 방법? 이 메일 (이 메일이라면 브라우저 이메일 이외의 것은?) FAX? 프린트? 디스크에 저장?
- 전문이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전자 우편이나 FAX로는 이용이 가능한가?
- 도서관 소장 자료를 링크가 가능한가? 즉 도서관이 프린트 형태나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가? 혹은 검색된 인용문으로부터 자관 OPAC으로의 링크가 가능한가?
- 저널 타이틀 레코드가 자관의 소장 사항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쉽게 OPAC에 통합 될 수 있는가?
- 데이터 베이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용자 교육이 필요한가?
- 제품은 윈도우 환경이나 맥킨토시 platform 환경 모두에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가? (두 가지 형태의 컴퓨터에서 똑 같은 검색을 실행해 보도록 한다.)

<이용자 지원 서비스>

- 온라인 헬프 이용이 가능한가?
- Context-sensitive인가? (즉 이용자가 수행하려는 상황에 맞게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도움말인가 혹은 단지 컨텐츠에 대한 도움말인가?)

- 내용별 도움말 기능 또한 이용 가능한가? 도움말의 위치는 찾기 쉬운가?
 - Instruction이 명확하고 따라 하기 쉬운가?
- 검색 스크린이나 도움말 스크린에 괜찮은 예문을 사용하고 있는가?
- 도움말 내용이 새로운 창으로 뜨는가? (이용자가 도움말을 따라 하면서 지시 사항을 읽을 수 있게)
 - 도움말 기능의 적정성은?
 - 검색 스크린이나 도움말 스크린에서 사용된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인가? (해당 데이터 베이스나 다른 데이터 베이스, 혹은 웹 검색 엔진으로의 이행이 쉽도록)
 - 기술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는가? (예를 들면, Boolean, PDF, ASCII 등등)
 - 데이터 베이스 출판업자의 contact 인포메이션은 어떤 종류로 이용 가능한가? 인포메이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는가?
 - 무료 전화 서비스를 통한 도움말을 제공해 주는 가? 응답은 즉각적인가? 기술지원 call back 서비스가 있는가? 하루 24시간, 매일 이용가능한가?
 - 검색 지원과 기술 지원이 양쪽 모두 가능한가?
 - 이 메일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가? 응답 시간은 적절한가?
 - 프린트 형태의 도큐멘테이션이 이용 가능하며 인쇄 상태는 깨끗하고 잘 구성되어 있으며 도움을 줄만 한가?
 - 어떤 종류의 또 다른 이용자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가? (E-mail?, Listserv?, FAX?, 사이트 상에서 직원 훈련은?)
 - 이용자 통계 자료가 제공되는가?
 - ◎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프린트? 전자형태? spreadsheet로 읽을 수 있나?)
 - ◎ 이용자 통계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가? (로그인 수? 검색 건수? 특정 저널 검색에 대한 히트 건수? 시간별 breakdown 건수? 주중 이용 건수? 이용된 형태(전자우편, 팩스, 온라인, PDF)별로?
 - ◎ 공급업체는 제품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이용자에게 알려 줄 수 있는가? 시스템의 문제나 복구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비용〉

- 가격은 무엇을 기초로 산정 되는가? (예를 들면 FTE; 동시 이용자수; 무제한 검색; 검색 건당 지불 ; 단행본 예산; 등등)
- 온라인 저널 가격은 인쇄물 저널 구독을 유지하는 조건인가?
- 비용을 알고 있다면 - 다른 유사 제품과 비교하여 합리적인가? 인쇄 형태 저널과 비교했을 때는?
- 데이터 베이스가 특수한 주제(경영, 의학 등등)의 것임에도 비용이 총 FTE를 대상으로 산정된다면 비용이 실제 이용자수와 비교 할 경우 합리적인가?
-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이 지불할 여유가 있는 정도의 비용인가?

〈서비스의 접근성〉

- 접속하기 어렵지는 않은가?
- 응답 시간은 적절한가? 하루 중 낮과 밤사이의 응답 시간이 다른가? 네트워크나 모뎀을 이용하는데 따른 시간은?
- 많은 서버가 downtime인가?
- 자바 스크립트 문제는?
- 다른 기술적 문제나 에러 메시지는? 에러 메시지는 보통 영어를 할 줄 아는 수준의 사람에게도 알아들을 만한 것인가?
- 접속의 의존성 및 안정성은?
- 서비스 시간 제한은 없는가? (예를 들면 동부 시간으로 자정에서 새벽 6까지 유지 보수를 위한 서버다운)
- 이용자 인증 방법이 몇 가지나 제공되는가? 원거리 접속은 가능한가? (password 인증방식만? IP 인증 방식만? 프록시 서버는? Referring URL? Certificates?)
- 화면의 문제나, 느린 모뎀 사용 혹은 구 모델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text only 버전이 이용 가능한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핵심 전자적 정보 자료 개발을 위한 범주

1. 소개와 근거

핵심 장서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며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고도로

요구되는 장서의 한 부분으로 정의된다.(짐 콜만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협력, 즉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 간의 협동적인 장서 개발을 위한 기회라고 1997년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장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명명함)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전자적 정보원 수서 원칙에 더하여, 아래에 제공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전자적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현저히 높일 수 있을 것이며 market place에 진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탄탄 대로를 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의 첫 번째 촉매 작용을 한 것이 통합된 기술 전략의 수립과 대학간 협력적인 정보 서비스이다.

2. 첫 번째 기준

핵심 전자정보의 자료로 포함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핵심적인 일반 과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전자 정보원으로 정의되려면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핵심 프로그램의 특수한 요구뿐 아니라 일반적인 요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ALA. 장서개발 위원회의 장서개발 지침, 시카고, ALA, 1979)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핵심 과목은 사회과학, 인문 예술, 생명 및 물리학 부분에서 학사학위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육학, 경영학, 공학 및 컴퓨터공학, 행정학, 간호학 부분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핵심 과목은 적어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캠퍼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과목으로 정의된다.

자원이 핵심 장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15개 이상의 캠퍼스에서 필요한 자료여야 한다.

3. 두 번째 기준

A. 핵심장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일반적 과목의 한가지 분야 이상을 포함할 것.
- 적절히 과거와 현재를 포함 할 것.
- 기본 검색기능과 고급 검색 기능이 있어야 함.
- 가격을 반영하여 볼 때 규모의 경제성이 있을 것.
- 캠퍼스 내에서, 그리고 밖에서 모두 접근 할 수 있어야 함.
- 도서관 직원의 지원은 최소한만 필요해야 함.

- 현재의 통신 구조에 적합할 것.
 - 적절한 문서와 훈련이 벤더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
 - 제품의 안정성.
 - 벤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벤더가 쉽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함.
- B. 다음의 항목을 하나 혹은 그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색인과 초록
- 전문, 신문, 단행본, 그리고 문서
- 숫자 정보, 통계 정보, 이미지 정보.
- 일반적인 reference tool

4.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핵심 전자정보로 포함

적어도 15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구독 캠퍼스에서 1년 이상의 충분한 평가 기간을 가진 후, EAR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핵심 전자적 장서로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도록 COLD에 추천할 수 있다.

5.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핵심 전자적 장서로 평가.

ECC에 포함된 자원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핵심장서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은 기술적 정보적 산업 발전이 자원의 내용에 미칠 영향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에 더하여 핵심 과목의 변화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예산의 변화도 ECC에 포함된 자원을 계속 포함시킬지 아닐 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원은 ECC에 계속적으로 포함시킬 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시스템 전체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주기는 해가 바뀔 때(일정이 바뀔 때) 혹은 적어도 3년에 한번씩 이루어 져야 한다.

EAR 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이 ECC에 포함된 항목이 더 이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위원회는 ECC에서 그 항목을 제외시키도록 COLD에 제안 할 수 있다. 검토 항목은, 제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자원이 얼마나 위에서 제시된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를 포함한다. 시스템 전체로서의 검토 시기를 거친 후 EAR은 핵심 전자적 장서로 계속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COLD에 제안할 수 있다.

부록 :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핵심 과목

다음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1997-98년간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으로 명명된 차트를 참조로 정의 된 것이다. 이 차트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1997-98년간의 학부 허가 팜플릿에 포함된 것이다. 핵심 과목은 적어도 22개 캠퍼스의 3분의 2 이상의 캠퍼스에서 제공되는 과목으로 정의된다. 핵심 프로그램을 구분할 목적으로 학사 학위가 제공되지 않는 MA나 MS 학위는 프로그램으로 포함시켰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위한 여러 분야에 걸친 프로그램이나 특수한 전공은 핵심 프로그램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회과학

인문학

Communications경제학

지리학

역사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예술 및 인문학

예술

영문학

불문학

음악

철학

스페인어

연극학

생명과학 및 물리학

생물학

화학

지질학

Kinesiology

수학

물리학

전문적인 프로그램

경영학

교육학

공학 및 컴퓨터 공학

간호학

행정학

〈Elsevier “ScienceDirect”에 대한 EAR 위원회의 평가〉

2000년 9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도서관 EAR 위원회는 Elsevier Science, AIChE, CRC press, ASM International 에서 출판되는 1,100여 종의 주요한 과학적 의학적 기술적 저널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 전문을 제공하는 ScienceDirect에 대해 2주간 평가를 수행했다.

ScienceDirect는 화학, 재료공학, 공학과 기술, 환경학, 경제학, 경영학, 신경학, 약학, 독극물학,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공학, 지구과학, 사회과학,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생물학과 의학에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 이 데이터 베이스는 세계 최고의 과학 데이터 베이스를 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생물학, 물리학, 기술 사회과학 분야의 핵심 저널에 대한 1700만 초록을 포함하며 이에 더하여 50만 이상의 전문 article을 포함한 전문 저널을 다루고 있다.

각각의 EAR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혹은 자신의 대학 직원으로 있는 적임의 교수와 협력하여 Science Direct를 평가하고 검토했다. 평가서는 이를 목적으로 위원회가 특별히 개발한 검토 회답 서식을 통해서 제출되었다. 비록 다른 직원이 검토 과정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 양식은 EAR 위원회 독자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평가 점수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어떤 특정 캠퍼스의 요구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로서의 대학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매겨진 것이다.

점수는 1점에서 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1점은 최소한의 가치, 4점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나타낸다. 다음은 평가된 내용이다.

- 데이터 베이스 정보

그 기능성을 고려하고, 형태(서지적 혹은 전문)의 적합성, 정보의 내용, 데이터 Coverage(소급정보, 현재 정보), 그리고 전체로서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가치를 고려한다.

- 검색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의 기능성과 이용이 용이성을 고려한다. 독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혹은 다량의 이용자 교육이 필요 되는가, 검색 인터페이스에서 빠트린 결정적인 항목이 있는가를 고려한다.

- 이용자 지원 서비스

제품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문서가 필요하다면 제공이 되는가, 이는 포괄적이며 인쇄 형태는 좋은가, 온라인 헬프 기능은 적절하며 이용자가 사용하기 친숙한 형태인가, 필요하다면 벤더가 이용자 교육을 지원해 주는가, 전화선을 통한 도움을 제공해 주는가를 고려한다.

- 비용

비용이 적절하다면 유사한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인가?

- 서비스의 접근성

제품에 접근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가, response 시간은 적절한가?

다음은 EAR 위원회 개개의 검토 회신 양식을 통해 얻은 평가 결과이다. 달리 언급되지 않으면 모든 comments는 Wiley의 InterScience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 데이터 베이스 정보 (4,3,4,4,3,3,)

Science Direct는 사회과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과학 분야를 다루는 전문 저

널 데이터 베이스이다. 이 분야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정보의 범위는 뛰어나다. Science Direct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양의 저널은 명백히 학생이나 교수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료이다. 최신성은 뛰어나다. 소급 정보의 포함율도 다른 출판사의 유사 전문 저널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해 볼 때 뛰어나다. Article은 SummaryPlus나 PDF, HTML등의 형태로 제공되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format을 제공해 준다. HTML 형태는 링크나 이미지를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아주 좋다. Science Direct를 평가하도록 부탁 받은 어떤 한 화학과 교수는 우리가 현재 소장하고 있는 실질적인 화학 저널에 굉장히 많은 화학 저널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태의 기능성이나 적절성도 좋다. 하지만 내용이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학생에게 구독 비용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지는 모르겠다.

Science Direct는 상당히 이용자 요구나 수준이 높은 엘즈비어 출판사의 저널과 다른 작은 출판사 그룹이 출판하는 상당량의 전자저널을 포함하는 데이터 베이스 이다. 전자저널의 형태는 다른 전자저널 출판사들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친숙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저널 issue위 위치를 찾는 것이 용이 하고 전문은 PDF형태로 배달된다. 1995년 이후의 저널을 포함한다. Science Direct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위해 굉장히 유용한 자료이다.

이것은 반드시 사야만 한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SD는 도서관을 지원하는 WASC로부터 대학원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품은 IDEAl이나 Muse와 같은 다른 전문제공 제품과 아주 많이 흡사하다. 기능은 좋고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검색 방법을 통해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내 연구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사의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단 한가지 이 제품에 4점 만점을 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이터 베이스에 비해서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연구자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제품에 포함 된 저널들은 너무 전문적인 것들이고 대부분이 이용이 적다는 점이다. 접근은 좋은 반면, 내용은 대부분 우리 이용자들에게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포괄성은 부족하지만, 우선적으로 Elsevier출판사의 저널들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과학부분의 저널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전반에 걸쳐 연구되는 많은 분야에서 유용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내용면이나 표현면에서 명백히 연구지원적인 데이터 베이스이

다.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구독하지 않는 저널의 초록이나 인용문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아가 유용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해도 전문을 제공하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내가 확인한 결과로는 전문은 1995년 이후부터 제공되고 있었다.

• 검색 인터페이스 (3.3.3.4.3.3)

타이틀이나 호수를 나열함으로써 저널을 확인할 수 있게 한 Browse 화면은 아주 잘 만들어 졌다. 명백하고, 간단하며 주의를 끌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제품을 접해보지 않은 이용자라 할지라도 이 화면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Alert 기능은 매우 호감이 가는 기능이며 이 기능을 통해서 이용자들은 현재 발행되는 있는 문헌에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검색엔진은 훌륭하다. 기본 검색화면은 형식을 이용하는 간단한 인터페이스이다. 고급 검색은 그러나 명령어가 필요한 인터페이스이다. 지식이 많은 이용자들은 명령어를 이용하는 검색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에 감사하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난해한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제대로 익혀 활용할 수 있을 지는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명령어를 이용한 검색 인터페이스를 익히기 위해서 헬프 스크린을 확인하거나 검색어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배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급 검색엔진을 잘 디자인하여 형식을 가지는 인터페이스로 만든다면 입력바가 아무리 많고 노리 연산자를 보여주는 풀다운 선택기능이 많아 진다해도 대부분의 이용자가 고급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제품의 검색 인터페이스는 좋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Wiley나 IDEAL과 같은 다른 제품의 인터페이스와 같이 잘 기능화되어 있다.

SD에서 제공하는 인덱스는 통제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모든 검색이 자연어로 제한되어 있다. 통제어를 사용하는 주제 색인이 없기 때문에 SD를 검색하는데 그 효과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SD에서 간과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개개의 저널 타이틀 페이지에 검색 프롬프트가 없다는 것이다. 검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SD는 제한된 잡지들 중에 필요한 기사를 찾기 보다 개개의 저널에서만 기사를 찾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특정 주제에 관련된 기사를 찾는데 관심이 있는 연구자는 SD처럼 작은 출판사 그룹에서 출판되는 저널에 국한되지 않고 통제된 주제 색인을 제공하는 잘 개발된 주제 색인을 사용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 주제에 관련된 검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온라인 색인, 예를 들면 실버 링커를 이용하는 실버 플레터 데이터

베이스와 같은 다른 온라인 색인에서 SD contents에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SD에서의 제한 검색기능은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제품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점은 전자저널을 배달해 준다는 것이며 이것은 아주 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서지 목록에서 바로 저널 타이틀 페이지로 링크가 가능하다는 점등이 그렇다. 단지 타이틀 페이지에서 이용자가 특정 저널에 대한 검색기능을 찾을 수만 있다면 더욱 편리한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선택에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이 모두 기능이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복잡한 검색이 가능하지만 검색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검색시간은 매우 빠르다고 볼 수 있다. 검색 인터페이스는 이용하기 쉽다. 그 래픽도 괜찮다. 풀다운 메뉴를 통해 선택하는 것도 명확하고 직접적이다. 논리적이고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검색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이용하는 다른 제품과 매우 유사하여 이용자들에게도 굉장히 뚜렷할 것이다. 녹색은 굉장히 끔찍스러우며 나에게서는 별로 호감이 가지는 않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편견일 뿐이다. 주제 칸과 source칸의 default값을 바꾸고 싶다. 소스 디폴트 값은 저널을 서술해야 하며 모든 주제 옵션은 풀다운 메뉴의 맨 위에 위치해야 하며 알파벳 순으로 Agriculture 다음 칸에 놓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날짜 선택부분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나라면 디폴트 값을 1999년에서 현재 가 아니라 모든 해로 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검색 형태는 좋다 기능도 아주 좋다.

전반적으로 검색 인터페이스는 명백하고 이용하기 쉽다. 비기능적으로 보이는 “이전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버튼이 검색 결과 화면의 맨 위에 위치하는 것이 의아스럽다. (결과가 한 페이지에 보여 지기 때문에 실제로 불필요하다) 이 제품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제공될 특징 중에 검색결과를 전자메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하나의 저널 이슈에서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이용자 지원 서비스 (4,3,3,4,4)

헬프 스크린은 뛰어나며 포괄적이고 명확하고 따라 하기 간단하게 되어 있다.

헬프 기능은 괜찮으며 요구에 맞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필요하다면 이용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가 상상해 본다.

온라인 헬프 기능이 와일리 인터사이언스에서처럼 문맥위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

성은 잘 되어 있고 이용하기 쉽다. 이 제품은 그 자체로 이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온라인 헬프 기능이 그다지 크게 요구되지는 않는다. 헬프 기능은 잘 디자인되어 있고 커버리지도 적당하다.

나는 이 제품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처음 액세스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이용자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 요구에 대한 대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 졌다. 다른 이용자 지원 서비스는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점수를 매길 수 없다.

문맥위주의 헬프 기능이 매우 명확히 정리되어 있고 이용하고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온라인 데모나 인쇄된 이용자 매뉴얼 양쪽 다 유용하다.

- 비용(3,2,4,1,3)

이번 평가 시점에서 비용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내용이나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비용이야말로 구매를 할지 말지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굉장히 폭리를 취할 만큼 비싸지 않다고 가정할 때 이 제품은 반드시 사야만 한다. 현재까지의 추세로는 적절한 가격이 제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Platform 비용을 뺀다면 현재 프린트 구독 가격의 10%를 구독가로 내는 것은 다른 업체의 다른 제품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서비스의 접근성(4,3,4,4,4)

접속시간이 적절하며 response시간이 매우 빠르다. 나는 Science Direct의 접속시간과 검색수행에 만족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만족할 만 하다.

접속시간이나 response시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Elsevier에서 우리 IP에 대하여 접속을 허용하고 나서부터는 시스템에 접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검색시 결과도 언제나 빨리 검색되었다.

접속은 전체적으로 빠르고 믿을 만하다.

• 전제적인 평가(3,3,3,4,2,3)

ScienceDirect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많은 양의 전문 전자저널에 접근하게 해주는 뛰어난 제품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고급 검색 인터페이스만 제외한다면 인터페이스도 뛰어나다. 비용이 제품 선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Science Direct에 4점을 주었을 것이다. 가격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혹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쌀 것을 우려하여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추었다.

저널 타이틀 페이지에 있는 개개 저널에 대한 검색 프롬프트는 아주 유용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제품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제품이라고 본다. 저널의 전문 접근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제품의 구입을 정당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서지적 정보나 초록 데이터 베이스 정보와 같이 고려해 본다면 이 제품은 놓쳐서는 안 되는 제품이다.

내용의 부차적인 특징과 높은 가격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더 이상 고려할 수 없다.

가격조건이 괜찮다면 Science Direct는 굉장히 호감이 가는 제품이 될 것이다. 검색 결과를 전자 메일로 보내 주는 기능이나 한 저널 내에서 검색을 가능하게 한 점은 이 제품을 더욱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었다.

• Home Campus만을 위한 평가(3,2,3,4,1,3)

Science Direct는 과학과 사회과학 분야 저널의 전문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나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본다. 그러나 고가의 저널에 대한 출판사의 평판이 논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평가에 도움을 준 한 화학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몇몇 엘스비어 저널의 가격 정책과 질보다 양이라는 문제로 인해 많은 비판이 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우리는 이 제품의 구매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Science Direct가 고려할 만한 계약조건을 협상하기를 바란다. 가격이 받아 들일만 하다면 우리 캠퍼스는 반드시 Science Direct를 구독해야만 한다.

이 제품의 내용이 비용을 정당화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이라고 본다.(내 개인적인 견해에서)

우리 캠퍼스는 궁극적으로 인쇄 잡지를 전자잡지로 바꾸려는 의도에서 가능한 많은 전

자저널을 구독하고 있다. Science Direct는 우리의 계획에 적합한 제품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엘스비어 저널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구독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계통 교수들과 학생들은 이 제품을 필요하다고 보며 장기적으로 구독하기를 바랄 것이다. Science Direct를 구독함으로써 인쇄잡지와 온라인 잡지 구독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고 볼 때 캠퍼스는 인쇄 잡지의 새로운 타이틀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온라인 서지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나는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우리 캠퍼스만을 고려 해 볼 때 이 제품을 절대로 사지 않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도서관 100%가 이 제품을 핵심 항목으로 지정해야만 한다. 핵심 구독에 대한 예상 할당이 상대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구독한다는 것은 유용하지 않다. 특히 작은 캠퍼스는 이 부분이 굉장한 도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는 구독하고 싶다.

도서관 컨소시엄을 위한 국제적인 연합

웹 베이스의 인덱스 초록 전문 정보 자원 이용 통계 측정에 대한 지침

소개

라이선스 받은 전자적 정보 자원에 대한 이용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독자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World Wide Web 같은 전자적 환경은 이러한 자원의 이용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진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가 접근되고 이용되어 지는 지를 좀더 명확하게 확인해야만 한다. 사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위험 없이 우리는 정보 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ICOLC 콘소시엄에 참가하면 각각의 도서관 회원이 허가받은 전자적 자료 정보 이용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Information Provider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시장성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암묵적인 관심은 전자 제품 제공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필수 요소로 요구되는 기본 이용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체계를 정의하고 창조한다는 데에 그 일치점을 갖는다. 이러한 요구는 웹사이트를 운

영하는 벤더에게 적용 될 수 도 있고 도서관에 제공된 소프트웨어 혹은 지역적으로 운영 되는 컨소시엄에 적용될 수 있다. Information Provider는 그들의 특별한 전자적 정보에 적절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요구를 제공하도록 독려된다.

이러한 ICOLC 지침은 JSTOR Web 통계 운영회에서 개발한 지침을 기초로 만들어 졌다. ICOLC 지침은 많은 ICOLC 회원이 허가한 다양한 자원에 좀더 폭 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정을 가했다.

1. 필요 조건

아래에 정의된 각각의 이용 요소는 다음과 같이 세분되어 윤곽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 A. Provider의 각각의 특정 Database별로
- B. 개개의 기관이 등록한 IP address 별로
- C. 전체 컨소시엄별로
- D. 구독자가 지니고 있는 특정 데이터 요소 별로 (예를 들면 , 계정이나 ID number)
- E. 시간 별로. 벤더 시스템은 최소한 월별로 이용 통계를 보고해야 한다. 각각의 달에 는 각각의 이용 형태에 따라 날짜별 시간별로 보고해야 하며 지난 통계는 24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벤더의 정보에 적절하게 항목화된 검색 건수. 검색은 고유한 지적 질문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전형적으로 검색은 검색 형식이 각 서버로 보내지는 시간별로 기록된다. 검색된 결과를 검토하거나 훑어보는 부차적인 작업이나 필요한 한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은 부차적인 검색건수로 잡히지는 않지만 검색 세트를 결정짓는 파라미터가 검색 형식이나, 이전 검색 세트의 조합 혹은 다른 유사한 기능을 통해서 수정될 때에는 가능하다.

선택 항목의 수는 벤더의 시스템에 맞게 항목화되어 질 수 있다. 데이터가 메뉴를 이용한 browsing기능에 의해 표시되어 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통계도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저널 사이트가 검색 형식 외에 저널 타이틀 알파벳순 별로 혹은 주제별로 메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검색 건수, 타이틀별 주제별 메뉴를 통한 선택 건수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로그인 횟수는 동시 이용자수 와 함께 제공되어 져야 한다. 이것은 질문을 통한 검색이나

메뉴를 이용한 검색 통계수를 대체하는 것이 되어 서는 안 된다.

계약서에서 제시한 동시 이용자수 제한에 따른 로그인 불가능 수.(예를 들면 동시 이용 제한 횟수를 초과한 로그인 요구 수치)

이용된 항목수(즉 검토되고, 마크되고 선택되고 다운로드 되고 이메일 되고 프린트 된 각 횟수) 이 기능은 브라우저에 의해서 보다는 서버에 의해서 기록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1. 표시된 인용문 건수

2. 타이틀 별로 이용된 전문, 이것은 리스트 된 타이틀과 함께 ISSN, 혹은 타이틀 이외에 저널을 식별할 수 있을 만한 다른 항목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1. 이용된 목차

2. 이용된 초록

3. 기사, 에세이, poem, chapter 등

4. 그 외(이미지 파일, 오디오 파일, 광고, 리뷰 등)

ICOLC는 파라미터와 관련된 웹기반의 리포팅 서비스의 기술적 수행에 대한 독립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예를 들어 다운로드 시간이나 응답 시간)

3. Privacy와 이용자 비밀 보장성

개개의 이용자에게 대한 사적인 정보를 밝히는 데이터나 통계는 컨소시엄이나 회원 도서관의 허락 없이 Information 업자에 의해 이용되거나 상용화되어 서는 안 된다.

4. 기관 혹은 컨소시엄의 비밀 보장성.

Information 업자는 컨소시엄 기관에게 각 군집된 기관 수준에서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맥락에서 포괄적인 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비교를 목적으로 그룹화하는 것은 반드시 information 업자에 의해서 편집되어 져야 한다.(예를 들면 유사한 기관을 익명으로 선택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혹은 요구에 따라 그룹화 하여야 한다.(컨소시엄에 참여한 모든 기관의 통계가 참여 기관이 필요로 한다면 익명으로 하던 아니던 제시하여야 한다.)

5. 접속/ 딜리버리 기술/ 보고서 형식

통계 리포트는 웹 기반의 리포팅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이것은 적절한 IP address나 혹은 password 인증 방식의 다른 보안 형식에 의해 제한되어

질 수 있다. 각 기관은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다른 기관이 원한다면 그들이 자신의 기관의 이용자 통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Information 제공업자는 참여 기관이 필요에 따라 접속 할 수 있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도표 형식의 통계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월별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 때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필요하다면 로컬에서 다운로드 하여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flat file 형태로도 제공 되어야 한다. 또한 이것을 도표나 차트 등으로 제공하기를 권한다.

이 성명서 채택 기관

이 기술서는 다음에 명시된 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coctia (ICOLC) 의 대표 기관에 의해 원칙적으로 채택되어 졌다. 이 성명서가 다음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 명시된 기관은 별다른 주석이 없으면 미국 내에 있는 컨소시엄이다.

이 성명서를 채택한 컨소시엄 대표 기관

ALICE (The Appalachian Linrary Information Cooperative)

AMIGOS Bibliographic Council, Inc.

Arizona Universities Lbrary Consortium(AULC)BCR

Big 12 Plus

Boston Library Consortium

British Columbia Electronic Library Network (Canada)

California Digital Library (CDL)

Th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anadian National Site Licensing Project (CNSLP)

Colorado Alliance

Committee for Institutional Cooperation (CIC)

CAUL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es)

Council of Prairie and Pacific University Libraries(COPPUL)(Canada)

CURL (United Kingdom)

Florida

Center for Library Automation

GALILEO

Illinois Cooperative Collection Management Program (ICCMO)

Illinois Library Computer Systems Organization (ILCSO)

INCOLSA

Israel Center for Digital Information Service

Louisiana Library Network

MERLIN

Michigan Library Consortium

MINITEX Library Information Network

MIRACL

MOREnet

NERL

Netherlands Associ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Royal Library, and
Library of the Royal Academy of Sciences (Dutch acronym:UKB)

Network of Alabama Academic Libraries

New England Law Library Consortium (NELLCO)

Novanet (Canada)

OhioLINK

Orbis

PALINET

Pennsylvania Academic Library Consortium, Inc. (PALCI)

Pioneer, Utah's Online Library

PORTALS

SCELC - Southern California Electronic Library Consortium

SCONUL (Ireland and United Kindom)

Solinet

Southeastern Wisconsin Information Technology Exchange (SWITCH)

Sub-Committee on Library of the Conference of Rectors and Principals of
Universities of Quebec (CREPUQ)

TaxShare

TriUniveristy Group of Library (TUG)(Canada)

UNILINC(Australia)

University of Texas System Digital Library

Utah Academic Library ConsortiumVIVA (The Virtual Library of Virginia)

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Wisconsin InterLibrary Services (WILS)

ICOLC는 Consortium of Consortia로서 1996년에 처음 모임을 가졌다. 이 연합은 국제적인 것이며 비공식적인 그룹까지 현재 북미, 유럽, 호주, 이스라엘, 중국, 남아프리카에 90여 개 이상의 도서관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연합은 회원은 우선적으로 고등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컨소시엄에 관련된 일반적인 논쟁점을 찾아 토론을 활성화하고 있다. ICOLC는 매년 미팅을 가지는 데 이를 통해서 회원 기관들이 새로운 전자적 정보원이나, 전자 정보 제공업체의 실제적인 제공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컨소시엄 지도자나 행정 위원회에게 중요한 다른 이슈들에 대한 정보도 얻게 된다. 이 연합은 정보 제공 업체의 제품 제안이나 상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슈들을 논의 할 수 있는 포럼 등을 개설함으로써 이들과의 미팅도 가지고 있다.

그 밖의 컨소시엄

- AULCC

Arizona University Library Consortium으로 Council은 하나의 협상기관을 가지지만 분권화 된 기관으로 개개의 기관이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이 컨소시엄은 Arizona Health Science Library, Arizona State Library, Arizona State University East, Arizona State University West, Northern Arizona University of Arizona가 참여기관으로 있다.

- CARL

Colorado Alliance of Research Library 컨소시엄은 24년 역사를 가지며 중앙

집권화 된 행정체제를 가진다. 전용직 직원을 두고 내부에 전자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ILS 기능이 있으며 회원 도서관에서 직접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기금 구성만 제외한다면 연합체계는 OhioLink와 유사하다.

- CCLA

도서관 자동화를 위한 대학 센터는 주에서 지휘하는 상당히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으로 Florida지역의 28개 공공 community college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컨소시엄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위임된 주별로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COPPUL

COPPUL은 다음의 14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Alberta 대학, Athabasca University, Brandon Universi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Calgary, University of Lethbridge, University of Manitoba, 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Regina, University of Saskatchewan, Simon Fraser University, Trinity 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of Victoria, University of Winnipeg. 이 대학들은 서부 캐나다의 4개의 지역, 즉 Manitoba, Saskatchewan, Alberta, British Columbia 에 위치한 주요한 대학들이다. COPPUL은 소규모의 중앙 집권화된 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한 명의 정규직원을 둔다) 있으며 비영리 기관으로 합병하는 과정에 있다. 이 컨소시엄은 우선적으로 분권화되어 운영되며 단 하나의 협상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개개의 도서관이 명백하게 협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 정규 직원을 항상 두지는 않는다). 구입 결정은 모든 기관이나 프로젝트가 개개 기관에 의해서 지불되는 한은 개개의 기관에서 개개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COPPUL은 단지 구입시 할인을 받기 위한 기관이 아니며 다른 종류의 협력 계약, 예를 들면, 도서관 상호 대차, Virtual Western Canada University 도서관 개발 등등을 위해 운영된다. 그러나 개개 회원 기관은 서비스를 자신의 기관에서 기관 나름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COPPUL은 혼합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 FCLA

FCLA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플로리다 대학에 부속된 플로리다 주립대학 연합이다. 이는 SUS 행정 기구인 Board of Regents를 통해 할당되는 주 예산으로 운영된다. 목적은 개개 도서관의 자동화 기능, 즉 온라인 목록, 열람, 목록 유지, 수서 및 연속간행물 운영 등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NOTIS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다. 이 시스템은 26개의 A & I 데이터 베이스 (IAC Business and Expanded Academic Index, UF, FSU, USF 같은 Elsevier Image Fulltext) 보유하고 있거나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데이터 베이스 라이선스 비용은 중앙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도서관에 의해서 지불된다.

• ILSCO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관은 자발적인 협회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는 법적인 규제 같은 것은 없다. 이 기관에서는 회원 기관에 OPAC / 열람 시스템이나, 목록 상호대차 시스템을 제공하며 전자적 자원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하나의 협상기구를 가지며 전자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는, 구입결정은 개개 도서관에서 한다.

• MINITEX

이 도서관 정보 네트워크는 1969년에 창설되어 쓰며 특별한 프로젝트로서 미네소타 고등 교육 서비스 기구 산하 미네소타 Legislature에 의해서 발족되었다. 목적은 공공 혹은 사립 대학 도서관이나 주정부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HESO는 미네소타 Twin City library에게 MINITEX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되어 있다. 계약서에는 도서관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또한 계약을 함으로써 주립 도서관 기관을 통해서 미네소타 공공 도서관이나 North and Dekoda에 있는 모든 종류의 도서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운영은 미네소타 대한 윌슨 도서관의 MINITEX 사무실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NALL

대학원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자원의 공유를 조정하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기구는 모든 종류의 도서관을 위한 가상 도서관 자원을 조정하는데 참여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기구 구조가 필요하며 NALL은 과연 이 새로운 기구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정의하는 작업 중에 있다. 알라바마 대학 네트워크는 소규모의 중앙 직원을 가진 분산된 컨소시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 교육을 위한 알라바마 위원회는 주립 기관으로서 재정을 맡은 기구라고 할 수 있다. NALL은 Information 제품의 라이선스를 획득하는데 회원 도서관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 NELLCO

NELLCO는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지만 전용직원을 한 명만 두고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 과거에는 도서관 상호 대차나 CD-ROM 종합 목록 등에 컨소시엄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NT server를 구입하여 개개 도서관의 라이선스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매체 라이선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인트라 넷이나 웹 페이지를 디자인했다. 이 조직의 인트라 넷 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실제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는 관장들에게 궁극적으로 웹 데이터 베이스 trial이나 구입을 추천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이 협상한 데이터 베이스는 이 컨소시엄 홈페이지에 등록 되게 된다. 컨소시엄 멤버들을 훈련하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선전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개 회원 기관에 달려 있다. 집행 위원장이 희망 기관은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공표를 서문으로 알리게 된다. 라이선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순전히 자발적이며 모든 비용은 회원 기관이 다시 부담하게 된다. 이 컨소시엄 서비스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상호 대차, 관장, 회원기관, 현재 운영팀 등에 대한 리스트 서비스, 웹사이트, LOIS, COMPASS, CLIP 과 같은 데이터 베이스, 훈련, 연 네트워크 미팅, BNA, Gaylord discount 등.

• PALCI

이 컨소시엄은 여러 기관 모델 중에서도 다소 혼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규 직원을 두고 질문 협상, 정보 분배 등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띄지만 전자 매체 구매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개개 회원 기관에 의사에 달려 있다. 그밖에 컨소시엄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다른 의사결정은 조사를 통해

서 결정하고 있다.

• OHIOLINK

이 조직은 중앙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나의 협상 기구를 두고 대부분의 회원 도서관을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조직의 경우 중앙 기금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 41개의 핵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이 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 시점까지 많은 서비스가 중앙 기금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전자 매체 라이선스는 우선적으로 개개 회원 기관들이 공동 출자하여 구입하게 되며 이는 또 다시 우선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구입을 위해 모으는 공동 기금에 의해서 증가되기도 한다. 앞으로는 공동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전자 매체나 웹 데이터 베이스를 늘려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여 기관이 모든 선정된 데이터 베이스를 살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가능한 한 기관이 선택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매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직은 주 수준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중앙 기금을 이용한 컴퓨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이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각 기관 수준에서의 CD나 테이프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룹 협상을 하지는 않는다.

• ORBIS

이 조직은 자원 공유 시스템을 창설하기 위해서 형성된 조직이며 최근에 들어서야 전자 매체에 대한 라이선스 구입을 시작하여 이 지역의 보다 느슨한 컨소시엄을 위한 재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 조직이 수행한 대부분의 업무는 최근 형성된 Normal 절차를 가지고 만든 ad hoc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직은 정책적 재정적 기구(ORBIS 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며 이 기구는 우선적으로 관리, 컨소시엄 성장,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ORBIS 종합 목록, 이용자 질문 시스템(오하이오 링크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함)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제 자리를 잡았으므로 현재 이 위원회는 라이선스 획득, 계획, 관리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데이터 베이스의 라이선스 획득은 다른 북서 지역의 컨소시엄과 연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면 뿐만 아니라 비 회원 기관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ORBIS가 관여해야 할 수준을 결정하며 (공식적인 역할, 협상의 책임, 재정 기관 등) 실제적인 구입 결정은 개개 기관이 하고 있다.

• PORTALS

Portland 지역 도서관 시스템으로서 포틀랜드 메트로 폴리탄(워싱턴 주를 포함함) 지역의 1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이다. 현장과 규범이 있으며 실행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의 정규 직원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무실은 포틀랜드 주립 대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을 대표하는 재정 기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VIVA

이 컨소시엄은 버지니아 지역에 있는 주에서 보조를 받는 39개의 college와 52개의 캠퍼스를 가지는 대학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박사과정을 포함하는 대학, 9개의 포괄적인 기관, 24개의 전문대학 혹은 분관대학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가능한 곳에서는 28개의 사립대학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의 목적은 공평하고, 협동적이고 방법으로 효율적인 비용으로 버지니아 지역의 고등 교육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대학 도서관의 정보자원에 대한 이용을 높이는데 있다. 이 기구 조직은 다소 독특한 것이어서 다음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정의 될 수 있다. 1) 중앙 집권적인 주립 수준의 기금으로 모든 공공 기관을 위해서 협상한다. 2) 사립이지만 비영리 기관이 그들 개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표해서 협상한다. 이에 더하여 이 조직은 sub-group(공공, 사립 기관을 모두 포함하는)의 공동 구매 개념을 도입해 왔다. 이는 지역 기금으로 운영되지만 공공 기관을 위해서는 아직 sub-group 구매를 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

• WRLC

이 조직은 워싱턴 D.C.에 있는 일곱 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다. (American, Catholic, Gallaudet, George Mason, George Washington, Marymount, and the University of D.C., Tritiny college, Mount Vermon College)WRLC의 주요 프로그램은 ALADIN으로 알려진 온라인 도서관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뿐만 아니라, 공동 목록,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국내의 컨소시엄 구성 현황과 그 문제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및 북미의 다른 컨소시엄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물론 십여 년이란 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안정된 컨소시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컨소시엄과 국내 컨소시엄을 평행선상에서 비교, 국내 컨소시엄을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의 성공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고 조율한다면 앞으로 더 발전적인 컨소시엄 구매를 통해 국내의 학생 및 교수 연구자들의 연구 지원 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